렘 쿨하스, 그리고 헤르조그와 드 뮤론

넥서스월드하우징, (1991) 후쿠오카, 일본.

기자에서 건축가로

'렘 쿨하스(Remment Koolhaas)'는 1944년 네덜란드 로테르담(Rotterdam) 출생으로 유년기를 인도네시아에서 보냈다. 그는최근세계건축계에한쪽바람을 일으키고있는네덜란드계건축가들의선봉장이라고할수있다.

쿨하스가 건축가가 된 과정은 흥미롭다. 그는 건축을하기전에 저널리스트로서이름을알렸었고, 극본도쓰는사람이었다. 그러던 그가 영국 AA스쿨에 입학하면서 건축에 발을 들여놓게 되었는데, 그가세상에알려지게된계기는그의작품 이전에 그가 쓴 「정신착란증의 뉴욕(Delirious New York)」이라는 책이었다. 그는 대도시에 관심이 많았고 그래서 그의사무실이름도OMA(Office for Metropolitan Architecture)라는이름으로 현대 대도시의 건축에 주요 관심을 두고 있다. 특히, 뉴욕에애정을가지고있는데 「정신착란증의 뉴욕」을 보면 뉴욕이라는 세계적인 도시가 만들어지게 된 역사적 배경과프로세스를잘 그려내고있다. 실제로 뉴욕은 과거 네덜란드인들이 가장 많이거주했던지역으로아직까지도보이지 않게 네덜란드인들의 영향력이 큰 지역이다.

자본주의 속의 건축가

쿨하스는 뉴욕처럼 여러 개의 층들이 중첩되고 충돌하면서 만들어내는 혼란을 오히려 현대 건축의 장점으로 바라보고 그의건축에서프로그램상이나공간의충돌을유도해내고있다. 그는대형도시설계프로젝트들을많이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그런 도시 설계들은 아주 실망스럽고, 오히려작은주택 작품들이훌륭하게디자인되어있다. 어쨌든그는책으로 명성을먼저알리기시작했기에결과적으로 작품만을 진행하는 여타 다른 작가들과는 차별화가 되어 그의 브랜드 가치가 높아지게되었다.

그는 경영적인 능력 역시 뛰어나 학교를 갓 졸업한 신입 사원들을 다국적으로 선발하여 전 세계에 자신의 추종자들과 개도국에서의마케팅이라는두마리토끼를다잡은건축가이다. 실제로그의사무실에서중요한위치를차지하는작품들은 유럽이아닌아시아와미국서부, 최근에는두바이와같은곳에집중되어있는것을 볼수있다. 네덜란드인들이국제화에 뛰어난 능력이 있는 것을 여기서도 엿볼 수 있으며, 쿨하스는 그러한 자신을 '자본의파도위에서파도타기를하는서퍼'라고표현하기도한다.

일본전통건축의현대적해석, 넥서스하우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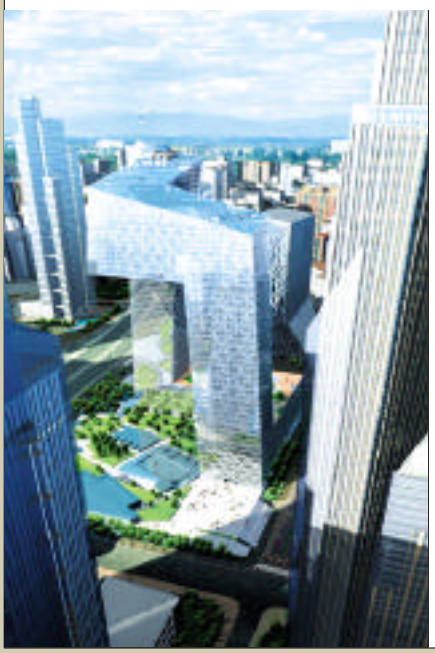
일본후쿠오카는1989년 'Next Us'라는 말을 줄여서 'Nexus'라는 이름의 가로형 집합 주거의 미래적 대안을 제시하는 프로젝트를시작하게되는데, 렘쿨하스는 스티븐 홀과 같은 유명 건축가들과 함께이프로젝트에참여하게되었다. 여기서그가제시한디자인은3층이라는고층집합주거이지만그안에일본전통건축에서 보이는 공간의 시퀀스를 잘 담아내어서전통과현대가잘조화된좋은예를 보여주었다. 일본전통주거를살펴보면, 정문을통과한후에마당이나오게되고 그곳에서하늘을바라보게된다. 이후 진행방향에서방향전환을해서몇차례

의 턴을 한 후에 최종 목표가 되는 방에 들어가게 된다. 그리고 그 방에서 바깥을 바라보면 담장이 있고, 담장 너머에 작은 산이 원경으로 들어오게 된다. 렘쿨하스는 짧은 시간의 일본 방문이지만, 이러한 원리를 파악하고 자신의 「넥서스 월드 하우징(Nexus World Housing, Fukuoka, Japan, 1991)」에 접목하였다. 이때 공간상의 제약 때문에 중정의 규모는 작아지고, 담장 너머 보이는 산은 옥상 지붕에 자그마하게 만든 잔디를 심은 흙 언덕으로 대체되기는 하였으나, 그 근본 아이디어는 잘 옮겨왔다.

베이징 CCTV 타워

개인적으로 그의 대표작이라고 생각되는 것은 베이징에 지어지고 있는 「CCTV 타워(CCTV, Beijing, China, 2002)」이다. 이 작품을 보면 쿨하스가 '지구의 중력을 농락하는 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희한하고 아슬아슬한 구조를 띠고 있다. 두개의 타워가 비스듬하게 올라가서 상층부에서 돌출된 캔틸레버 구조로 만나게 되어 있는 데 옆으로 안쓰러지는 것이 신기해 보이는 매스이다. 초기 계획에는 캔틸레버로 나온 고층부에 방송국 임원들의 사무실이 위치해 있었으나, 계획안을 본 후 겁먹은 임원들이 사무실을 안전해 보이는 저층부로 옮겼다고 한다. 이러한 혁신적인 구조를 가능케 하는 데는 시드니의 오페라하우스를 완성시킨 세계적인 구조회사 '오브아럽(Ove Arup)'의 신기에 가까운 구조 실력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이다.

CCTV, (2002) 베이징, 중국.



현대 건축의 흐름 중에는 뒤에 나오는 '헤르조그'의 「베이징 올림픽 스타디움(Beijing National Stadium, Beijing, China, 2002 08)」이나 '토요 이토'의 「토드빌딩」처럼 기존의 기둥, 보, 슬래브로 해석되는 구조로는 설명하기 힘든 새로운 형태의 구조 계산이 필요한 건물들이 속속 나타나고 있다. 컴퓨터를 이용한 새로운 구조 시뮬레이션 기술이 개발되었기에 가능한 작품들이다.

CCTV 타워의 입면을 살펴보면 대각선으로 된 빔들이 유리창에 노출되어 있는데, 이것들의 모양이 기존 아이엠페이의 「중국은행」 빌딩에서와 같은 규칙적인 모습이 아니라 대각선의 간격이 제 각각이다. 언뜻 아무 이유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모양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구조적으로 코너 부분에 모멘텀이 많이 요구되는 곳에 더 많은 부재가 들어가서 보강하게 되고, 그것을 입면에 그대로 노출시켜 미적 인요소로 승화시킨 것으로, 필연적 이유가 있는 입면 디자인이다. 대담한 구조, 기술력, 미적 인 충격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역사에 남을 만한 건축물의 요소를 갖춘 훌륭한 작품이다. 하지만 렘쿨하스의 상상력에도 한계가 왔는지, 최근의 작품에서는 30여 년 전 스타워즈 영화에 나오는 '죽음의 별(Death Star)'을 그대로 베낀 듯한 계획안도 나오고 있어서 실망감을 주고 있다.

헤르조그와 드 뮤론

'자크 헤르조그(Jacques Herzog)'와 '피에르 드 뮤론(Pierre de Meuron)'은 둘 다 1950년생으로 스위스의 ETH라는 학교에서 건축을 전공하였다. 이들은 이후 1978년 스위스 바젤(Basel)에서 사무실을 함께 설립한 후 지금까지 유지해 오고 있다. 이들은 얼마전에 개장한 베이징 올림픽 주경기장 현상설계에 당선되면서 명실상부한 세계적 건축가의 반열에 이름을 올렸다. 2001년에는 건축계의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프리츠커 프라이즈(Pritzker Prize)'를 수상하여 명예의 전당에도 입성한 건축가들이다.

베이징 올림픽 메인 스타디움

이번 올림픽을 통해 여러 번 매스컴에서 설명되어 많은 분들이 이미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베이징 올림픽 메인 스타디움은 새의 둥지를 연상케 하는 운동장이다. 약 10여 년 전부터 해체주의가 이슈에서 사라진 이후 건축가들의 개념 설명에 단골 메뉴로 올라오던 것이 있다면, 얼마나 이해하고 인용하는지 모르겠지만, 프랑스 철학자 질들루즈의 '주름이론'과 경계의 모호를 설명하는 '블러(blur)'라는 용어이다. 이러한 모호함의 트렌드에 따라서 인지 「베이징 올림픽 메인 스타디움」 역시 전통적 건축요소인 기둥과 보 같은 이름으로 설명하기 힘든, 어디까지가 기둥이고 어느 것이 보인지 명확한 구분이 되어 보이지 않는 건축물이다.

하지만 실제 구조적인 개념은 의외로 단순 명료하다. 스타디움은 보통 운동장 윗부분이 타원형으로 뚫려 있는데 그 타원의 주변을 따라서 보편적인 'ㄷ 차 형

베이징올림픽스타디움, (2002 08) 베이징, 중국.

태의 트러스가 돌아가면서 배치되고 그 사이사이를 불규칙해 보이게 사선 부재를 집어넣어서 나뭇가지로 만든 새의 둥지 형태를 띠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만들어진입면사이로새어나오는불빛의 아름다움은 말로 설명하기는 힘들고 직접 눈으로 보면 그 감동을 느낄 수 있을것이다. 헤르조그가이같은자연의 현상과 같은 불규칙해 보이는 빛의 효과를디자인할수있었던것은다음에설명될「도미누스 와인 양조장(Dominus Winery, Napa Valley, California, 1997)을설계하면서정립된디자인철학의결과라고할수있다.

카오스적아름다움, 도미누스와인양조장

헤르조그는초기의「스톤하우스(Stone House, Tavole, Italy, 1985 88)」같은 주택 작업을 통해서 지역성을 강하게 띠는 버네큘러(Vernacular) 건축을성공적으로 만든 경험이 있었다. 스톤하우스에서헤르조그는대지주변에있는돌을가지고 입면의 주요 재료로 사용함으로써 대지주변에있는같은돌재질로만들어진 옹벽과 어울리는 주택을 설계한 적이 있다. 이 경험을 바탕으로 캘리포니아에 와인양조장을설계할 때는좀더발전시켜서 돌로 만들어진 벽체 뒤쪽에 아무런 벽을 만들지 않음으로써 자연 채광이 돌과돌사이를통해서복도공간으로새어들어오게 하였다. 벽이 만들어진 텍토닉을 살펴보면 아주 간단하면서도 명쾌하다. 두 개의 철조망을 만들어 놓고 그 사이에 돌을 집어넣는데, 아래쪽에는작은 크기의 돌부터 쌓기 시작해서 위로 올라갈수록점점돌의크기가커지게하였다. 이렇게 함으로써 구조적인 힘을 많이 받아야하는아래쪽은밀도가높게되고위로 갈수록 저밀도의 투광성이 높은 벽이 만들어지게 하였다. 사진을 보면 알겠지만, 이렇게해서만들어진공간속의빛의 효과는캘리포니아의강한직사광선을투과시켜 소름이 끼칠 정도로 아름다운 모습을연출해내고있다.

도미누스 와인 양조장, (1997) 나파 밸리, 캘리포니아, 미국.

이와 같이 입면을 새롭게 디자인하여 새로운현상을연출하는것이현대건축의 하나의 조류이다. 한때 건축가들은 현대과학의카오스이론을억지로적용하기위해서여러가지컴퓨터를이용하여불규칙해 보이는 형태의 건축물을 만들어 왔다. 하지만그러한작업들은사실자연의겉모습만을모방하여, 건축을짝퉁의수준으로 격하시켰다. 반면, 헤르조그의 경우에는 겸허하게 재료의 부분은 자연에 맡기고, 본인은 그 돌들을 어떻게 조합할 것인지 인간이담당할텍토닉한부분만발명하여 기존자연에서는볼수없지만, 자연과함께만들어낸새로운공간을창조해낸것이다. 그런 면에서 헤르조그의 천재성이 엿보이며 다음작품이 기대되는건축가중한명이다.

유현준
홍익대건축학부교수